

황금 연휴 선거전 이어간 전북교육감 후보자들

이남호 “찾아오는 전북교육”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안과 완주, 익산 전주를 잇는 민생 행보에 나서며 지역 맞춤형 교육 공약과 미래교육 비전을 잇따라 발표했다. 농산어촌 교육안전망 구축부터 학교체육 활성화, 시니어 일자리 연계, 학교예술교육 강화까지 폭넓은 정책을 제시하며 “전북교육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오전 진안 고원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완주 송광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봉축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익산 북부시장과 영등동 전주역 삼거리 등을 차례로 돌며 상인과 학부모 시민들을 만나 전북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송광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은 서로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에 있다”며 “전북교육 역시 아이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안 유세에서는 농산어촌 교육 현실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산골지역 학생 에듀플렉스와 마을 귀가버스 운영, 농번기 365일 온종일 돌봄 아파트·환경성 집합 치유 에듀센터 확대 등을 추진해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에서는 서부권 명품교육 거점 조성 계획을 내세웠다. 이리공고의 미이셔딩 전환, 이리여고 이전의 학교육 연계 기술형 명품중학교 설립, 원도심 오픈스쿨 교육 등을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에서는 미래교육 거점도시 조성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교육과정 평가원 설립과 AI·인문 창작 스튜디오 운영, 전북형 IB 교육특구 조성, 청소년 교육문화 공간 확대 등을 통해 전북교육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학교체육 활성화 종합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학교체육은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



전북 곳곳 유세에 나선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민생·체육·예술·시니어 공약 총력전 “전북교육의 체질 바꾸겠다” 의지 드러내

나라 학생의 건강과 인성, 공동체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의 뿌리’라며 학교별 특화 체육종목 육성과 움직임 있는 학교 정책 도입을 약속했다. ‘학교 1특화종목’ 정책은 각 시·군의 체육자원과 학교 여건을 반영해 학교마다 대표 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규 체육수업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 활동까지 연계하는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일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열린 체육관’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북교육청 차원의 학교체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배치 등을 통합 지원하고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전문인력 배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퇴선수와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학교와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시니어 세대를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늘봄학교 지원과 학생 등하교 안전, 학교보건 행정, 급식 지원 등 학교지원형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독서·인성·금융교육 분야까지 참여 영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공약도 내렸다. 이 후보는 최근 정부 예산 축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책임예산 편성을 통해 예술교육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지역예술인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고 국악·연극·영화·디자인·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워겠다는 계획이 다. /특별취재반

천호성 “학생 삶 바꾸는 교육”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황금연휴 기간 불심(佛心) 공약과 함께 학생 안전, 금융교육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현장 중심 선거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을 단순한 학교 수업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유권자 점점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천 후보는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24일 김제와 전주 지역 주요 사찰을 찾아 불자들과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김제 금산사 주차장에서 집중 유세를 시작한 천 후보는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이어 귀신사와 참좋은우리집, 정혜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민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전주 합동유세에 참여하며 황금연휴 기간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천 후보는 현장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오늘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아이들이 경쟁과 서열 속에서만 살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공동체 정신과 전통이 살아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지역 안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민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보는 천 후보가 내세우는 생활밀착형 교육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천 후보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마약과 불법도박, 신종담배 문제에



현장·안전·금융 아우른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 잇따라

대응하기 위해 ‘마약·도박·흡연 Zao 학교’ 조성 공약도 발표했다.

천 후보는 학생들이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닌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중독의 위험성을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VR 기반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에듀테크(Edu-Tech) 기반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올바른 선택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에 따르면 학생들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해 마약과 흡연, 불법도박이 개인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하게 된다. 또 실제 상황을 가정한 콘텐츠를 통해 위험 상황 대처 능력과 거절 의사 표현 능력 등을 학습하게 된다.

천 후보는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와 스마트폰 기반 불법도박, 신종담배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기존의 주입식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생 세대에 맞는 체험형 교육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방교육 내용도 구체적이다. 마약의 종류와 특징, 관련 범죄와 처벌

기준, 전문 상담기관 연계 체험은 물론 흡연 유형 테스트와 도박 예방 체험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위험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문기관 상담 체험까지 연계해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천 후보는 “안전한 가상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몰입도를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청소년들이 마약과 도박, 흡연 문제를 스스로 경계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활밀착형 교육 공약은 금융교육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천 후보는 25일 전북지역경제교육센터와 전북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하고 청소년 경제·금융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사업은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 진출 경제 독립 캠프’다.

캠프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거계약 이해, 디지털 금융자산 관리, 금융범죄 대응 교육 등이 진행된다. 학생들이 실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는 실습형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또 교육청과 전북도, 전북지역경제교육센터가 참여하는 ‘전북 금융교육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과 학교 현장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I와 핀테크, 디지털 자산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북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전문 강사단을 학교와 연계 운영하고 학생용 워크북과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와 스마트폰 기반 불법도박, 신종담배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기존의 주입식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생 세대에 맞는 체험형 교육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방교육 내용도 구체적이다. 마약의 종류와 특징, 관련 범죄와 처벌

민주시민교육 강화... ‘헌법교육 지원단’ 구성

전북교육청, 도내 초중고 교원 20여명으로 구성... 내달부터 헌법가치 기반 수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헌법교육 전문 교원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북교육청은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초·중·고 교원 20여 명으로 ‘헌법교육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참여 중심의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돼 왔다. 이에 교육청은 헌법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전공자, 관련 활동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요구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집중 연수와 보수교육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투입된다. 주요 역할은 헌법가치 기반 민주시민교육 수업 지원, 교원 대상 연수 및 워크숍 강의, 학교 맞춤형 컨설팅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

한 뒤 지원단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 전문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개발한 ‘헌법과 민주주의’ 교수학습 자료에 이어, 올해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 자료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헌법교육은 필수”라며 “지원단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확대

전북교육청, 강사 방문형 교육 운영... 진로·자존감 향상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 중 한쪽의 출신국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선정된 학생의 학교를 강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돕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부모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208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오는 11월까지 학생별로 20회 수업이 진행된다. 지원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등 8개다. 이 가운데 베트남어와 중국어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앞서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수강 학생의 90% 이상이 “부모 나라를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사업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정미정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강점을 키우고 사회적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수요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국립군산대 생활과학교실

내달 1일부터 '2기' 운영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생활과학교실은 오는 6월 1일부터 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만들기 활동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2기 프로그램에서는 ‘물의 마법’, ‘키보드 속 기어’, ‘압전소자 발전기’ 등 과학 원리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주제부터 ‘움직이는 종이컵’, ‘착시광학’, ‘구멍 뚫린 딱딱이’와 같은 체험형 활동까지 다채로운 수업이 마련됐다. 또한 자연과 환경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테러리움 만들기 활동도 포함되어 참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국립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ksuclass>) 및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life.seoch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민호 기자

전국 미술교사들, AI시대 미술교육 혁신 모색

17개 시도 대표 참여 워크숍 전북서 개최

전국 미술교사들이 AI 시대에 대응한 학교 미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에 모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한국미술교육연구회는 지난 25일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서 ‘전국 시도 대표자 대의원회 및 상시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미술교육연구회 대표단 53명과 상시연구위원 27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학교 예술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미술교육연구회는 전국 미술교사들의 연구 협력체로, 그동안 학생의 생각을 끌어내는 미술교육, 주제 융합형 수업, AI 및 에듀테크 기반 수업자료 개발 등 교실 혁신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국 6,000여명 미술교사의 연구 성과와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단위 교육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오는 11월 2일부터 7일까지 2026 한국미술교육페스티벌의 전주 개

최와 관련된 운영 계획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해당 행사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리며, 미래 미술교육의 현장을 보여주는 대표 교육 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전북중등미술교육연구회 김계형 회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들의 수업 역량과 학생들의 창작 기회를 확장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임영근 문체건강과장은 “미래지향적 학교 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일초서 ‘핀&핀! 전주 학생 체육 한마당’

전주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육 한마당 행사를 열며 학생자치 활동 확산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전주전일초등학교 강당에서 ‘핀&핀! 전주 학생 체육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6기 전주학생자치연합회 학생들이 “학교를 넘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만들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첫 공동체 행사다.

행사에는 전주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생자치연합회 소속 학생, 협력교사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준비운동과 체육활동,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함께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 학생은 “직접 의견을 내고 준비한 행사라 더욱 뜻깊었다”며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상근 기자